

종합·해설

민주 ‘총선 탈당인사’ 복당 수순 밟나

박지원 비대위원장 “연말 대선 역량 극대화 위해 검토”

지역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의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4·11 총선과정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지역순회 투표’에 앞서 가진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전대가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구체화할 것이며, 총선과정에서 그분들의 해당 행위도 별로 없는 만큼 일괄 복당시켜 연말 대선 전에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당의 무공천방침으로 광주 동구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박주선 의원과,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최인기·조영택 의원을 비롯, 해당 지역구 당원들에 대한 복당 조치가 예상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안 돼 통탄스럽지만 127석 민주당이 민중당”이라고 상기시키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자체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민들에게 민주

당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하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린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비전 제시 방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묵은(전북지역 등) 노사분규 조정 타결 ▲지방분권 예산 확보로 자치기반 강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상대하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관련해 “박정희-이명박 대통령을 연계시켜 문제점을 집중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가 유례없이 원수지간인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그는 “박정희 집권 18년 가운데 6년 동안 (프스트레이디 대역을 하면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는 식의 ‘함대지’ 용인술은 익혀 일 부 내공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 서도 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달려 있 다고 언급했다.

연론 과업사태와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개인회사인 국민일보와 부

산일보와 달리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낙한산 인사를 막고 공정보도를 보장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 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해 “특검에 넘기지 말도록 검찰 부 내공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 서도 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달려 있 다고 언급했다.

연론 과업사태와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개인회사인 국민일보와 부



검찰의 통합진보당 강제 압수수색 규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해간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의원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 통합진보 당원명부 서버 압수 전면수사

야권 “정치탄압” 강력 비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해간 가운데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 통합진보당의 모든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22일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검찰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총선 과정에서 문제됐던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과 연일 폭로되는 핵심 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 등으로 인해 진

보당에 이르렀다”며 “모든 의혹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또 “검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은 수백 명의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 불법적인 실행행위로 압수수색을 저지했다”며 “이번 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위와 공권력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색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와 신당권파는 모두 한목소리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대

검찰청과 법무부를 향한 방문했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이 가족을 버거내는 게 아니라 내장까지 꺼내서 혁신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당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당의 심장’같은 당원 명부를 철탈해 간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 정보를 쥐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권의 시너

가 돼 이번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비판했다.

오병용 당원비대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공권력의 개입은 정치상황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음모에서 출발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며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등이 기록된 서버 3대를 가져갔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새누리 대선 경선허리위 내주중 발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관심...대선주자들 黨회의 참석할 듯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허리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발족된다.

경선허리위가 구성될 겨우 비박 주자들이 곧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당직자는 22일 “이번주 중 후속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음주에라도 경선허리위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허리위원장은 중립적인 당원으로 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두 털고 가야 한다”면서 “국회 청문회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선허리위의 최대 과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다. 찬박계 인사들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비박(非朴·비박근혜) 잠룡인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심재철 최고위원 추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친이 핵심인 이 의원은 “4·11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는 15~16%의 표심을 잡는 방법은 중간 표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현행 틀대로하는 것보다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누구나 참여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인적으로 득이 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오픈프라이머리이고 이것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것이 핵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자칫 ‘오픈관도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정몽준 의원 등 비박 주자들을 당 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당헌 94조엔 대선 후보 경선 출마자들이 상임고문 자격으로 당 회의에 참석해 당무 전반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박태규 전혀 모르는 사람...만난 적도 없다”

박지원 “흥미진진한 일 벌어질 것”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지족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수 차례 만났다고 발원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박 비대위원장은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맞박았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19대 국회 당선자 총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

난 자리에서 “(박태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다”며 “계속해서 그렇게 허위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에 수 재대로 수사를 해 이런 기회에 네거티브를 뿌리 뽑아줬으면 좋겠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

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은, 저를 더욱 기쁘게 했다”며 “나름 수 축이 육성을 가지고 있고 저도 복수의 유명인사자가 저에게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진실이 누구에게 나는가(알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역시 예산 지킴이

이정현 의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광주 시내 5개 초·중등학교 시설 보수비로 특별교부금 13억1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삼무 초등학교 탈의실 및 휴게실 건축비 1억6000만원, 영주 초등학교 교실바닥 보수비 2억9000만원, 신일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보수 3억4800만원, 금호중 노후 화장실 보수 2억3000만원, 마재초등학교 교실바닥 보수 3억1000만원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광주 시내 각급 학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광주서부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급한 사안을 선정, 교육부와 꾸준히 접촉한 끝에 21일 최종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의원은 “학생회관 이전 부지에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증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치단체장 당내 경선편

현직유지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임차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김문수 경기지사처럼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을과 열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동동 소재지)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환영!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매드립니다!

유림 공인중개사

일국지구 중심상가 및정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1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철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두암동 2층건물 164평 건물400평(31억)

임대보증금 95억 월1,500만원

토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능,식당영업중)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사가리크네)

■(상무지구)1,980㎡(600평)-평당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750만원(시영입)

(회사사무,오피스빌딩 적합)

■(동림지구)중주까지 운암~하남 간대로면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영 1층)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상무지구 건물매매

-대 지 : 200평

-연면적 : 150평

-보증금 : 1억5천만원

-월차임 : 1500만원

(부가세별도)

-매매금액 : 29억원

평동공단 부지매매

-대 지 : 3000평

-분할가능

-매매가 상담후 결정

첨단산단 공장매매

-대 지 : 1000평

-공 장 : 3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

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구주택(임몰, 투룸, 스리룸)

〈토지구함〉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한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 ~ 300평, • 용도지역: 자연지역 • 용도: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충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상입지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변,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철고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함평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총장리(이포위) 대2708m2,건18171m2 감평가 310억 최저가 138억9천	영암살(하진사) 대777m2,건1152m2 감평가 9억2천 최저가 5억1천	하순도(방학직업) 대3234m2,건2558m2 감평가 42억4천 최저가 18억9천	동명동(고시원) 대1060m2,건2555m2 감평가 22억4천 최저가 14억4천	신안동(스포츠타워) 대3026m2,건5584m2 감평가 69억3천 최저가 31억	치명동(유형주점) 대164m2,2944m2 감평가 19억8천 최저가 15억8천	중흥동(병원직업) 대2075m2,건12510m2 감평가 124억7천 최저가 44억7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강원정선(관광호텔) ▷대지 993평 ▷건물 4989평 ▷감평가 85억 ▷매매가 30억(협의후결정)	대전(웨딩홀) ▷대지 958평 ▷건물 5346평 ▷감평가 222억9천 ▷매매가 130억(협의후결정)	광주 쌍암동(유흥시설) ▷대지 1520평 ▷건물944평 ▷감평가 89억7천 ▷매매가 40억(협의후결정)	담양(금성(공장))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평가 7억 1600만 ▷매매가 5억2천(협의후결정)
용봉동(하(스포츠복스)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평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사설비발도)	곡성석곡 공장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평가 44억3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평가 135억 ▷매매가 80억불합가(협의후결정)	순천 조례동(주차빌딩) ▷대지 646평 ▷건물 1708평 ▷감평가 43억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신지 대476,21700 금 대489,212854 국립과 대1837,21776 신동 대3026,25594 중흥 대2075,212510 월산 대1080,21113 대261,21404 대252,21488 충진 대2708,218171 하순도 대3234,214280	대지/건물 10977 129 4 69 69 124 20 3944 16 310 42 725 691 198 114 198 598 138 18	대지/건물 2917 995 1893 24103 21152 21544 214742 21201 21222 21408 21239	대지/건물 195 492 995 695 591 494 769 229 493 393 29 29	대지/건물 195 492 995 695 591 494 769 229 493 393 29 29	대지/건물 2597 21871 214615 213189 212688 211651 212042 212776 211669 21773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책/재개발	박미란팀장 010-9
--------	---------------------	--------	-------------